



책의 탄생과 즐거운 만남

파주출판단지 '겨울방학 책나라 모험'

겨울방학은 초등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놀이동산과 스키장은 초등학생들로 붐비지만, 한편으로 학원가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초등학생들도 많이 눈에 띈다. 학업환경이 급변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수

험생활이 초등학생까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를 바라보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다. 초등학생 정도라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학원에 학원을 거쳐 고3 수험생처럼 공부에 지친 몸으

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신나게 놀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학습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이는 학부모의 공통된 관심사다.

그 때문인지 최근 겨울방학을 위한 다양한 테마캠프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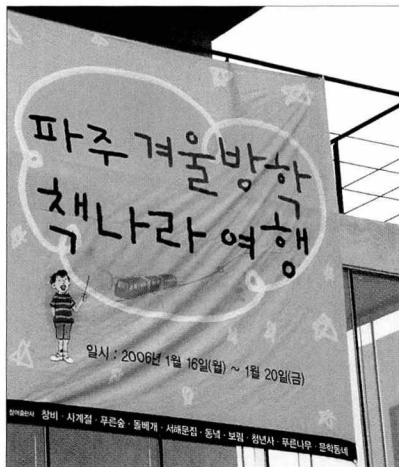
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캠프들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주출판단지의 10여개 출판사가 모였다. '겨울방학 책나라 여행 운동본부'가 그것인데, 출판사와 책을 쓴 저자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그와 친구가 될 수 있게끔 했다.

서해문집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창비, 문학동네, 청년사, 동녘, 푸른숲, 들베개, 보림, 푸른나무 등의 출판사들이 이와 뜻을 같이해 열리게 된 '겨울방학 책나라 여행'은 이번이 첫번째 행사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계획으로 체험과 현장성에 중점을 뒀고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이 출판단지를 등하교 하듯이 수업을 한다는 점에 조금 불편해 하는 듯 했으나,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발견 때문인지 즐거워 보였다.

앞으로 지방문화 행사로 거듭날 것

'겨울방학 책나라 여행'을 함께 하는 아이들은 '책의 탄생'에 참여하는 것에 들떠있었고, '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책의 소중함과 의미,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었으며, 저자와 편집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어렵게 느꼈던 역사, 문화, 고전, 통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부드러운 설명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져 '생각의 나무'가 자라도록 도와줬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서해문집의 김홍식 대표는 "지금까지는 영리단체들에서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출판사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친



구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행사를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파주 책나라 여행은 여름캠프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계를 통해서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값진 시간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책나라 여행'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많았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이들에게 출판인쇄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겨울방학동안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작은 삶들을 책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어 하나의 지방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제 '책나라 여행'을 떠나자

이번 '파주 겨울방학 책나라 여행'이라는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책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아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

이고, 책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좋은 친구를 하나 더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책나라 여행'은 합정역에서 파주출판단지 셔틀버스를 타면서 시작됐다. 버스는 시원한 자유로를 달려 파주북시티로 들어섰고, 아이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디면서 저마다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펴는 듯 재잘댔다.

파주북시티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성채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양이었다. 파주북시티는 6백여개의 출판사, 인쇄사 등 관련회사들이 모여있는 신도시로 2003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현재는 세계적인 책 세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눈에 출판문화 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이번 '책나라 여행지'로 적격인 곳이다.

버스에서 내려 서해문집의 새로운 사옥의 3층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간단한 입학식을 거치고 파주출판도시를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직접 파주출판도시를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김정희 건축가의 자상한 설명으로 파주출판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책의 탄생'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책나라 여행의 일정은 아이들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글을 쓰는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5일간의 여정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출판현장체험, 작가와의 만남, 글읽기와 글쓰기 체험, 파주출판도시 견학, 교사 및 학부모형 초청 행사, 결과물

제작, 도서 제공 및 구입 기회 제공 등 총 7가지로 구성됐다.

‘출판현장체험’은 출판사, 인쇄회사, 제본소, 서점 등 출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견학, 체험하여 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 책의 탄생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한권의 책을 가지고 저자와 함께 만나는 자리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자리였다. 책의 주제를 놓고 초등학생들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돼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텍스트 생산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책의 문화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글읽기와 글쓰기 체험’에서는 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줬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글을 쓰고 고치면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글쓰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파주출판도시견학’은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출판관련업체와 출판사 건물들을 견학하는 시간이다. 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현장과 출판, 인쇄, 제본과 관련된 업체들의 건물과 시스템에 대해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다.

‘교사 및 학부모 초청 행사’는 참가자가 속한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일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은 독서관련, 파주출판도시 참관, 북센 참관 등으로 꾸며졌다.

또한 ‘결과물 제작’을 통해서 본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작성한 결과물들을 취합하여 책으로 제작한 후 나눠주기도 했다.

도서 제공 및 구입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 전원에게 프로그램의 교재가 되었던 책들을 무료로 증정하는 한편, 참여 출판사의 도서들을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졌다.

풍성한 겨울방학 축제

첫날(16일, 월요일)은 우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홍식 서해문집 대표이사가 간단히 행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책나라 여행’의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어 고용택 팀장의 자세한 일정소개와 책나라를 여행시켜줄 안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5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조편성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상함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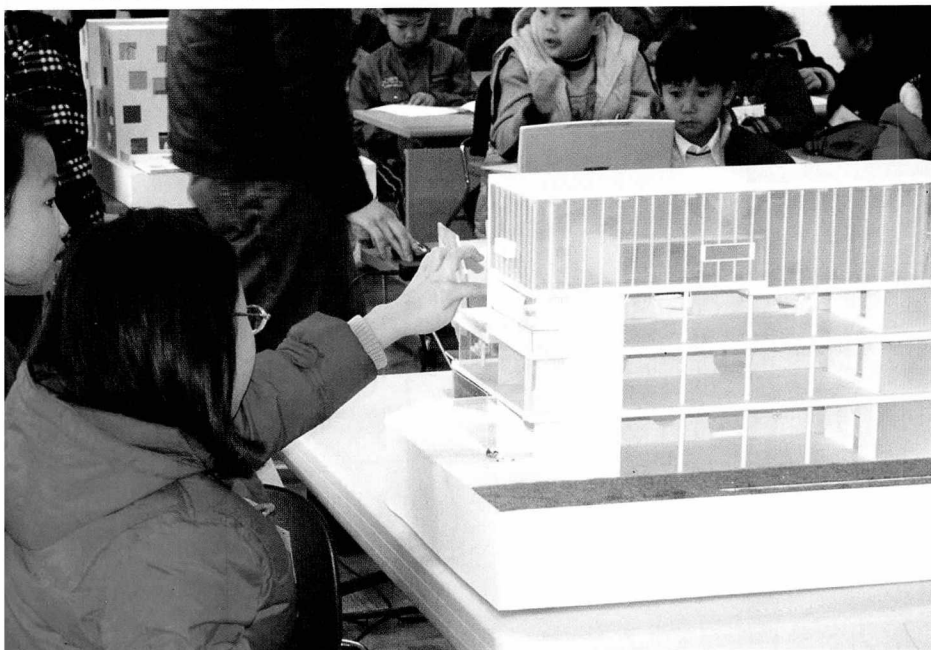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파주 출판도시 견학이 이어졌다. 차가운 바깥 날씨 때문에 직접 걸어다니며 건물들을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김정희 건축가가 들 고온 건물 모형을 보면서 신기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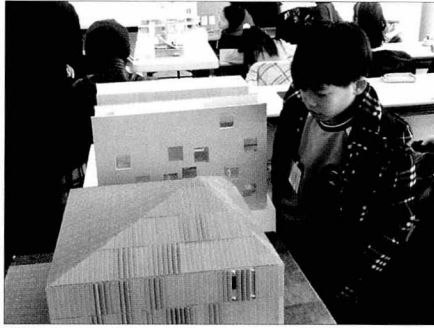
‘출판도시는 어떻게 기획되고 건설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는 파주의 출판도시는 누가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조금은 딱딱하다고 느낄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의자를 놀라게 했다. 강의를 끝나고 서해문집 사옥 주변의 건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는 이희정 강사의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대부분 부모님께서 선택해 준 책을 읽어왔던 아이들에게 자신이 책을 선택한다는 주제는 매력적인 듯 했다. 잠시 휴식 후 곧이어 ‘올바른 글은 어떻게 쓰는 걸까’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쓰던 글자들을 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강연이었다. 조금은 어려울 듯도 했지만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재미 있었어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라며 자신감 보였다.

둘째 날(17일, 화요일)은 ‘도서출판

김정희 건축가가 참가어린이들에게 모형을 통해 파주출판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아이가 건물모형이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파주출판단지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아이
참가 어린이들이 책나라 여행일정표를 살펴보고 있다
쉬는시간 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푸른나무' 에서 윤정모 작가와 김정도 화가를 초대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반전, 평화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아이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신일문화사’라는 인쇄사 견학으로 이어졌다. 이 곳에서는 ‘인쇄된 종이로 책을 만들어 보기’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해 흥미로웠다. 또한 인쇄사를 지나 ‘상지P&B’라는 제본소에서 책이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을 견학하기도 했다.

셋째 날(18일, 수요일)은 ‘도서출판 창비’에서 이해숙 작가와 김성민 화가의 설명으로 ‘재미있다 우리고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흔히 어린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고전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40분 정도의 강의가 끝나고 조각칼로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찍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마다 상상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였다. 오후에는 ‘파란 자전거’에서 ‘인사동 가는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수자 작가가 인사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아이들에게 인사동이라는 문화의

거리를 소개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

넷째 날(19일, 목요일)에는 ‘도서출판 푸른숲’의 이은홍 저자가 ‘역사야 나오너라’라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소개했다. ‘쉽고 말랑한 역사이야기’라는 주제로 딱딱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개했다. 아이들은 “역사가 재미있어요”라면서 웃었다. 점심식사 후 책의 마지막 단계인 ‘유통현장 및 어린이도서 견학’ 시간이 있었다. 국내 도서유통을 대표하는 곳 두 곳인 ‘복센’과 ‘책이랑’을 견학했다. 아이들에게 도서가 어떻게 자신들에게까지 오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20일, 금요일)은 사계절출판사에서 이부영 강사의 ‘2006년 우리

들의 생활사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5일 동안의 행사를 정리했다. 간단한 졸업식이 있었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어지는 학부모 초청행사로 자신이 평소에 갖고 싶던 책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5일 동안 경험한 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책들을 골랐고, 예전과 부쩍 달라진 모습에 학부모들은 기특해했다.

행사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출판사들이 저자들의 통일, 역사, 고전 등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소개해 교육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살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법을 가르쳤다는데 의의가 있다.

‘많은 분야가 모여서 하나의 세상이 된다.’ 이는 간단한 명제이면서도 소중한 진리이기도 하다.

‘책의 탄생, 그리고 만남’은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함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김정삼기자 sang@print.or.kr